

프랑스 대사 바뀔때마다 대광역고 찾은 까닭은?

2015년 양수경 교사 훈장 계기 꾸준한 교육 교류 깊어진 인연 지난해 학생들 엘리제궁 초청 26일 하원의원 5명·대사 일행 대광역고 방문 학생들과 대화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가 26일 오전 광주 대광역고 학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광주 대광역고등학교와 프랑스의 인연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수년 동안 주한 프랑스 대사가 바뀔 때마다 직접 대광역고를 방문함은 물론 대광역고와 프랑스 고교 간의 홈스테이 등 다양한 교류행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2015년 이후 한국과 프랑스의 교류는 물론, 광주와 프랑스 간 교육교류가 활성화되는 등 광주교육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와 하원의원 친선협회 프랑스 사절단은 26일 오전 대광역고를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고 학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프랑스 하원의원인 조아킴 손 포르제, 스테파니노, 미셸 에르비옹, 드니 마세글리아, 피비앙 레네 등 5명의 '불한 하원의원 친선협회' 의원들도 학교를 찾아왔다.

불한 하원의원 친선협회장인 조아킴 손 포르제 의원은 한국에서 태어나 프랑스로 입양돼 2017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는 이날 학생들에게 "한국인 부인을 만나 결혼했고, 장모님 역시 한국에서 교사로 재직했던 탓에 한국 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다"며 "지속적으로 불어를 가르치고 프

랑스에 대한 사랑을 보내주는 대광역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대광역고와 프랑스의 친선관계의 시작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5년 6월 대광역고 양수경 불어 교사가 프랑스 정부로부터 '교육공헌 훈장'을 수여받은 게 인연이 됐다.

프랑스 교육공헌훈장은 나폴레옹 1세가 프랑스 대학 석학들에게 수여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현재는 교육·문화 분야에 공로가 큰 세계 각국 유력인사들에게 프랑스 정부가 직접 수여한다. 그동안 대학교수나 문화계 저명인사들이 받았으며, 고등학교 교사가 받은 사례는 이례적이다.

당시 제롬 파스키외 프랑스 대사가 직접 학교를 찾아와 훈장을 수여한 뒤 2017년

10월 프랑스 교육대표단이 방문했고, 지난해 9월에는 파비앵 페논 전 프랑스 대사가 찾아와 특강을 하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해 9월 프랑스 엘리제궁에서 열린 양국 정상 만찬장에 대광역고 학생과 교사들이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주한 프랑스 대사가 바뀔 때 마다 학교를 방문하고, 프랑스 대통령이 학생들을 초청하는 등 고위 관계자들이 관심이 커다란 점에서 대광역고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애정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인연이 이어지면서 광주와 프랑스의 교육 교류에도 물꼬가 났다.

지난해부터 프랑스 몽펠리에 '장 모네' 고등학교와 각각 12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홈스테이 방식의 국제교류를 시행 중으로, 광주시교육청과 몽펠리에교육청은 교육·역사·문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의 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다음달 6일에는 몽펠리에 교육감과 교육 대표단이 광주와 대광역고를 방문할 예정이다.

프랑스 정부는 외국어고가 아닌, 일반고에서 꾸준한 불어교육과 함께 프랑스를 알고 있는 대광역고에 깊은 애정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유양식 대광역고 교장은 "프랑스 정부와 고위 관계자들이 광주와 대광역고에 지대한 관심을 보내주고 있다"며 "우리 학교가 역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와의 국제교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글 사진=박기용 기자 pboxe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18 달뜨기 07:36
해질 17:21 달질 18:00

외투 챙기세요

고기압 영향으로 구름이 많겠다.

광주	구름많음	7/11	보성	구름많음	4/11
목포	구름많음	7/10	순천	구름많음	8/13
여수	구름많음	10/13	영광	구름많음	5/9
나주	구름많음	7/11	진도	구름많음	8/10
완도	구름많음	8/11	전주	구름많음	6/10
구례	구름많음	6/12	군산	구름많음	6/10
강진	구름많음	7/12	남원	구름많음	6/11
해남	구름많음	7/11	축산도	구름많음	9/11
장성	구름많음	6/10			



◇ 바다 날씨

지역	해상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남부	안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1.0~2.0
	면바다(서)	북~북동	0.5~1.5	북~북동	1.5~3.0
	면바다(동)	북~북동	1.0~2.0	북~북동	1.0~2.5
남해서부	안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0.5~1.0
	면바다(서)	북~북동	1.0~1.5	북~북동	1.0~2.0
	면바다(동)	북서~북	0.5~1.5	북서~북	1.0~2.0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7:24	20:01	02:06	14:48
여수	02:52		09:33	
	15:33		21:33	

◇ 주간 날씨

28(목)	29(금)	30(토)	12/1(일)	2(월)	3(화)	4(수)
☁	☀	☁	☁	☁	☁	☀
1/13	2/12	2/15	7/14	6/10	2/7	1/8

◇ 생활지수

- 보통
- 감기
- 보통
- 뇌졸중
- 보통
- 미세먼지

머리카락 1천분의 1...암 표적 치료 로봇 개발

전남대 최은표 교수 연구팀 국소 암 치료에 획기적 효과

전남대학교가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덩어리진 암(고형암)을 진단, 치료할 수 있는 머리카락 1000분의 1 크기의 초미세 의료로봇을 개발했다.

전남대 최은표 기계공학부(한국마크로로봇연구소) 연구부장 교수 연구팀은 직경 10~20nm(1nm는 10억분의 1m)의 나노 자석입자들을 묻혀 직경 100

nm의 '다기능성 의료 나노로봇'을 제작하는데 성공했다. 이 로봇은 사람의 몸속에 주사기로 투입되고, 신체 외부에서 전자기장을 이용해 암 세포에 정확히 다가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여기에 암 세포에 반응하는 염산을 연결하면 암 세포를 찾아간다. 또 열을 머금은 금 나노입자와 '폴리도파민'을 코팅해 주입한 뒤 신체 외부에

서 근적외선을 쬐이면 원하는 위치에서 약 물이나 열을 방출해 암을 치료한다. 이와 함께 다른 생체 분자의 접근을 막는 폴리에틸렌 글리콜(PEG) 분자를 나노로봇에 붙이면 약효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으며, 환자 몸에 투여된 후 CT나 MRI 등 의료 영상장비로 몸속에서의 치료과정을 모니터링할 수도 있다.

이같은 기능은 세포 및 동물실험을 통해 검증됐고, 국제학술지 '나노 레터스(Nano Letters)'(영향력지수 12.279) 11월호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주변·정장조직에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암세포만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국소 암 치료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 /재희홍 기자 chae@

자살, 교통사고 사망보다 많은데 ...지자체 예방예산은 0.016%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지자체의 자살 예방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0.01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회자살예방포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전생활실천운동은 '2018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국회 자살예방포럼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자료를 받아 추진했다. 전국 229개 지자체를 전수조사했고, 자살률을 포함한 지자체 별 자살예방 관련 조직, 인구, 예산 등을

살펴봤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자살자 수는 1만2463명으로, 같은 해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4185명)보다 많았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둔 지자체는 203(88.6%)곳이었으며, 자살예방

관련 담당 부서 또는 보건소를 둔 곳은 125(54.6%)곳, 자살예방센터를 둔 지자체는 30(13.1%)곳에 불과했다.

전국의 229개 지자체의 자살 예방 예산은 지자체 총예산(149조원) 대비 0.016%(평균 9419만7119원)에 머물렀다. 인구 10만명당 자살 예방 담당 업무와 관련있는 공무원은 1.02명이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 동구, 조선대와 함께 ICT활성화 교육

광주시 동구가 조선대학교와 함께 4차 산업 기반 '소프트웨어 분야 ICT활성화 교육'을 실시한다.

오는 29일부터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조선대학교 SW융합교육원, LINC+사업단과 협업해 내년 1월 중순까지 진행된다. 4차 산업 기반이 되는 IT교육을 비롯한 산업 빅데이터·인공지능 ICC 연계형 교육, 창업실무특강도 포함됐다. IT교육과정은 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코딩교육, VR(가상현실)·AR(증강현

실)·MR(혼합현실) 개념과 활용, 드론 산업 기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동구청 홈페이지 '새소식'란과 구정홍보 앱 '두드림'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동구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조선대학교와 협업을 이어가 4차 산업 기반 문화예술콘텐츠 사업 추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 자동차 종합검사소 전수조사... 11곳 적발

광주에서 자동차 성능을 진단하는 종합검사소의 안전·공기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장비조합 등과 함께 지역 전체 50개 자동차 종합검사소의 안전·배출가스 검사 실태를 점검해 11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합동 점검은 지난 6일부터 22일까지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 확보와 배출가스

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매년 포집 설비 관리 상태를 점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시는 매년 포집 설비, 측정기 불량 등으로 적발된 5곳을 업무정지 등 행정 처분하기로 했다. 소음 측정기 정격 상태 불량, 자동차 기록용 카메라 저화질 등 위반 사항이 경미한 6곳은 시정 또는 개선 명령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방치된 묘지 70%(추정)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062-412-2800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함평수목장
함평군 대동면 소재
광주화장장에서 46km(약 50분 소요)
목포화장장에서 39km(약 35분 소요)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순천화장장에서 52km(약 50분 소요)